

TIPLONews 한국어본

2019 년 10 월호(K242)

K190928Y1

K190928Y5

01 2019 대만 혁신 및 기술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종료. 대만의 놀라운 소프트웨어를 보여주었다. 경계를 넘는 기술 개발이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다.

2019 대만 혁신 기술 박람회는 9 월 28 일에 성공적으로 폐막되었으며, 3 일 동안 45,000 명 이상의 국내외 전문가 및 일반 대중이 전시회에 참가했다. 30 여 개국에서 대만으로 와서 박람회에 참가했다. 방문기간 동안 주요 구매자는 중국, 일본, 한국, 미국, 태국, 홍콩, 불가리아, 캐나다, 이집트, 싱가포르 및 베트남이었으며, 발명 경쟁부문의 최우수상인 플래티넘 상도 오늘 발표되었다. 대만내 참가자 가운데 가장 많은 수상을 한 곳은 중앙대학(中央大學)이었고 2 개의 플래티넘 상과 8 개의 금, 은, 동메달을 수상했다.

주최측은 다양하고 풍부한 전시 내용으로 국제 방문객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이 전시회는 다국적 특허 발명을 위한 최고의 거래 및 전시의 플랫폼이 되었다고 말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수천개의 특허 기술과 제품이 전시되었다. 그 중에는 아시아실리콘밸리개발센터(ASVDA)¹⁾ 과 대만 각 기술회사와 협력하여 개발한 미래 과학 기술 박물관에 자율 주행 자동차를 전시했다. 현장에서는 자율주행 중앙제어 플랫폼, 해당 주요구성 부품 공급망 및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등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대만의 자율 주행 자동차 환경이 완전한 모습을 갖추고 있음과 그 기술개발 역량을 해외에 보여주었다.

또한 영속발전관 ²⁾에서는 공업기술연구소(ITRI)³⁾가 개발한 "연료감응형

태양전지" ⁴⁾가 전시회중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 기술은 다양한 조명환경에서도 발전할 수 있고, 아울러 경량화도 되어있어 저비용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실내 조명이 200 루멘 ⁵⁾인 약한 실내 조명환경에서도 연료감응형태양전지는 여전히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혁신발명관 ⁶⁾은 국제적으로 많은 신진 혁신단체를 유치했는데, 포함 59 개의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였다.

과학기술부⁷⁾에 따르면 다국적 기술 교환 및 특히 협력을 촉진하는 것 외에도 양 당사자간 협력유치금액은 NTD 1 억⁸⁾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대만의 혁신적인 기술개발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나타냈다.

걸출발명관⁹⁾은 경제부 지재국¹⁰⁾에서 계획했으며 2018년에 국가 발명수상작 총 41건을 전시했다. 해당 작품들은 순환경제, 스마트기계, 광전액정, 자본통신, 생명공학 및 의료 재료와 같은 다양한 분야를 망라했다. 이를 통해 뛰어난 대만 발명가들의 풍부한 혁신과 연구 개발 능력을 세계에 보여 주었다.

올해의 발명 경쟁 부문의 출품 업체들도 수확이 많았으며, 2개의 주요 해외 전시그룹단체인 한국 발명진흥회 (KIPA)와 인도네시아 발명혁신촉진협회 (INNOPA)도 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대만 혁신 기술 박람회의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해외 발명가들에게 있어 본 전시회의 참가 및 수상은 아시아의 대표성 및 명성에 상당한 확신을 갖게하고 있기에 해당 전시회는 매년 반드시 참가해야 하는 발명행사중의 하나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2019.09)

역주:

- 1) ASVDA는 Asia Silicon Valley Development Agency를 지칭.
- 2) 중국어 永續發展館의 번역. 환경파괴없이 지속가능한 기술개발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전시.

- 3) ITRI는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 Institute를 지칭.
- 4) 이는 染敏電池의 번역으로 Dye-sensitized solar cell (DSSC)를 지칭.
- 5) 루멘은 Lumen으로 광량의 측정단위.
- 6) 혁신박물관은 創新發明館의 번역.
- 7) 이는 대만 科技部(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를 지칭.
- 8) NTD는 대만화폐단위 New Taiwan Dollar를 지칭.
- 9) 영어로 Excellent Invention임.
- 10) 지재국은 경제부 산하의 智慧財產局(Intellectual Property Office)을 지칭.

K190830Y2

02 지역이름이 포함된 안경상표에 대하여 지재법원¹⁾은 등록하지 않기로 판결

2018년 2월 26일 득은당안경²⁾은 "BOY LONDON"이라는 상표로 경제부 지재국³⁾에 등록을 신청했으며, 지재국의 심사를 통해 상표 패턴이 상표의 본질, 품질 또는 기원에 대해 대중에게 오해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 등록이 허용되지 않았다.

득은당안경은 이에 불복, 재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지재국은 이를 거절하여, 지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며칠전, 지재법원은 득은당안경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

득은당안경는 상표가 "LONDON BOY"가 아니라 "BOY LONDON"이라고 주장했다. 의미는 "소년 런던 (이름이 런던)"이고 "런던 소년"이 아니기에, 소비자는 상표 전체를 인식하고, 따라서, "BOY LONDON" 상표는 소비자가 이 상표를 잘못 식별하게하지 않으며 그 원산지는 London이라고 오인하게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득은당안경은 "BOY LONDON" 상표를 사용한 이래로 소비자로부터 제품 라벨이 허위라거나 기타 경쟁업체가 공정거래협회에 "BOY LONDON" 상표가 불공정경쟁에 해당한다고 고발한 적이 없다고 했다.

득은당 안경은 이 회사가 안경 및 안경과 관련한 악세서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잘 알려진 회사라고 주장하며, 1965년 설립된 이래 대만의 안경 시장에 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했다.

득은당안경은 아울러 자신이 사용하는 "Romio BOY LONDON"상표는 1991년 초에 등록되었으며 소비자는 이미 "BOY LONDON"이 득은당안경에서 사용하는 상표임을 알고 있다. 또한 시장에 "TOKYO", "SEOUL", "Wellington"등을 포함하는 상표가 붙은 제품이 각각 일본 도쿄, 대한민국 서울, 뉴질랜드의 웰링턴 제품은 아니고, 지재국은 이를 등록했었다. 따라서, 득은당안경의 "BOY LONDON"상표만 등록 할 수 없으면 이는 평등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재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LONDON"이라는 용어는 비록 사람의 이름으로 사용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도시명과 비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LONDON"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영국의 수도로 직관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므로 이름은 여전히 영국 런던을 가리키는 강력한 요점을 가지고 있다; 비록 "BOY LONDON" 상표에서 "LONDON"라는 단어 앞에 "BOY"가 붙어 있지만, 전반적인 관찰 결과 소비자는 여전히 런던에서 온 또는 런던과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로 생각한다; 또한, 득은당안경에 예시한 "TOKYO", "SEOUL", 및 "Wellington"등의 단어가 포함하고도 등록된 상표는, 각 상표명칭 및 지정하여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가 다르고, 각 안건의 사실 및 증거 형태의 차이가 난다. 따라서, 각 안건별 상표 식별성 강약, 일반 소비자가 오인할 소지의 가능성 여부등을 고려시 판단 결과가 다르다고 하였다.
(2019.09)

역주:

- 1) 중국어 智慧財產法院(Intellectual Property Court)를 지칭.
- 2) 득은당안경은 得恩堂眼鏡有限公司(Grace Optical Co., Ltd)를 지칭.
- 3) 이는經濟部智慧財產局(Intellectual Property Office, Ministry of Economic Affairs)를 지칭.